

학생 졸업 미사

시편 19(18),2-3

입당송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앗을 전하네.
<대영광송은 연중 시기 주일과 축일에 바친다.>

본기도

지혜의 샘이신 하느님,
(오늘) 졸업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을 비추시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온갖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경은 주일에만 바친다.>

예물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졸업의 영광을 안겨 주셨으니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시어
젊은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부모와 스승은 천상의 보람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감사송 <참된 지혜와 복음 선포> <또는 공통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어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아드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지혜로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제자들을 가르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파견하셨나이다.
주님께서서는 몸소 기르고 가르치신 젊은이들이
이제 배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위업을 계속하도록 파견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 거룩하시도다! …….

영성체송

시편 119(118),105 참조

주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옵니다.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새 삶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저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며
현세의 보람과 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